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연령대별 의식 비교 연구

Study on the Consciousness about Community Facility According to Age Group of Residents in Apartment Building

김 혜 진*
Kim, Hyejin

이 연 숙**
Lee, Yeunsook

Abstract

As the living standard of citizens are improving and the demand for the quality of life is increasing, the demand for the facilities of welfare and convenience for varied ages rises. Besides, our residential environment is faced with the need for changing into the environment of integrated function of living, which holds health, leisure, culture, education, welfare, etc. Considering the present reality requiring the augment of welfare facilities due to our aging society, community integrated facilities are needed, which can contain welfare service for home-living citizens within residential circle and can accept diverse needs of residents. Accordingly, the study began in order to suggest a better direction for community integrated facilities' plan that considers all age brackets for aging society. The study is to figure out way of thinking what community space of 3 age cluster middle-age in the 30s~40s, preparatory senior citizen in the 50s and old age brackets in the 60s~70s. As methods for attaining the aim of this study, surveys of documents and questionnaire survey were simultaneously used. The result of the study, investigating the importance of a community among the members in the residential complex, showed that all the age groups have highly perceived its importance. All the age groups responded that leisure are important to the elderly. It indicates that importance of their social relations are with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t proves that there is lack of facilities for leisure activities of residents in apartment house.

키워드 : 여가, 커뮤니티, 사회통합, 커뮤니티시설, 고령사회

Keywords : Leisure, Community, Social integration, Community facility, Aging Society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건강과 여가에 대한 패러다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병폐를 인식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강조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빙 (Well-being)·네오웰빙 (Neo Well-being)·로하스(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웰니스(Wellness)등의 개념을 통해 건강과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소외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커뮤니티와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대 이상이 체감하는 세대차이 체감지수가 높고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대부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40대 이상의 소외감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정도도 86.9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향후 세대 간 갈등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¹⁾

이처럼, 고령화사회의 여가와 커뮤니티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이다.

선진여러국가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통합 방안은 이미 여러 국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이 높아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중요하다는 여러 연구를 통해 그

* 주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교수 (yeunsooklee@yonsei.ac.kr)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도시제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습.

1) 디지털타임스, 2004,6,10일자

역할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노인에게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자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다양한 세대들과의 유대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거환경권내의 커뮤니티시설은 그 중요성이 큰 공간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거주자가 다양한 연령층과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사용하려는 참여의지이며,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층의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의식과 이용 선호도를 파악하여 고령화사회커뮤니티시설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주거환경권내 커뮤니티시설의 이점 및 필요성으로써의 여가활동, 사회통합, 접근성 측면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조사를 하고 둘째, 서울에 거주하는 30~70대 연령층의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주거환경권내에서의 여가와 커뮤니티 및 시설이용에 대한 거주자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설문과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방법을 병행 사용하여 진행하였는데 30~50대를 대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설문을 실시·수집하였고 60~70대 노인인 경우 인터넷 접속빈도가 적기 때문에 경로당을 통해 설문을 수집하였다. 인터넷설문은 500세대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 3곳의 인터넷동호회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고령자층대상 설문은 5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 3곳의 경로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총 143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이 중 유효 표본은 불성실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140부였으며 설문결과는 SPSS for Win 12.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2. 문헌고찰

본 연구는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연령대별 의식과 선호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커뮤니티공간계획을 위한 고령화사회의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시설의 관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1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공동체등을 나타내는 말로서 공간적 사회에서 일정한 영역을 함께 하는 지역성,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하는 집단적 정체성, 그리고 독자적 실체로서 스스로 존속하려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닌다(김현수, 2000).

지역 공동체의 특징은 첫째, 물리적 또는 지리적 장소에 근거한 사회조직의 형태이다. 둘째, 공동된 지역에 살거나 동일시된 사람들에 초점이 주어진다. 지역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상의 목적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셋째, 상호 의존된 공동된 욕구, 공동된 문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넷째, 지역공동체는 개인을 전체사회에 그리고 전체사회를 개인에 연결시키는 중간체계이다. 유능한 지역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가치를 두고 참여를 격려하며 상호부조와 자발적 지원체계를 발달시키는데 관심이 있다(이인정과 최혜경,1995).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은 거주자가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곳으로서 이웃 주민과의 교류가 주로 이루어지고 거주자들의 이웃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정의되며 주민공유공간, 복리시설 등의 명칭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신연섭,2006).

아파트의 주민공유공간은 과거에는 경로당, 놀이터 등의 기본 법정시설 일부로 국한되어 계획되어 왔으나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 프리미엄, 시세형성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증가하여 최근 몇 해 동안 아파트 주거문화의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여가와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가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2.2 고령화시대 커뮤니티시설의 이점 및 필요성

1) 사회통합측면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절대수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2008)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수명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2010년의 평균수명은 79.1세이고 향후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81.0세, 2030년에는 81.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빠른 고령화 속도와 폭넓은 노인연령층의 증가는 노인여가,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다.

사회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직계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가 추진되는 등의 가족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1990년에 비하여 2000년의 1세대 가구와 1인가구는 크게 증가한 반면 2세대 가구는 큰 변화가 없고 3세대이상 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부 1991;통계청 2000).

표 1.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2002	2010	2020	2030	2050
남 자	73.4	76.2	78.2	79.2	80.7
여 자	80.4	82.6	84.4	85.2	86.6
계	77.0	79.1	81.0	81.9	83.3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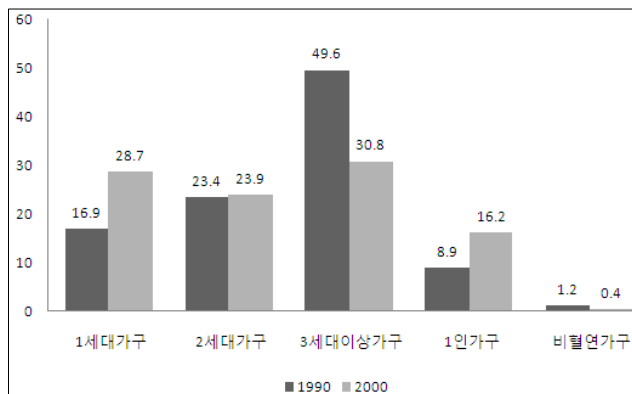


그림 1. 65세 이상 인구의 세대구성별 분포 추이

이러한 가족구성의 변화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별거 노인인구 즉, 독신 노인 가구 및 부부 노인가구의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은 이미 지난 1990년대에 세계노인의 날과 세계 노인의 해를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라는 노인의 해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세대간 통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여러국가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통합 방안은 이미 여러 국면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의욕이 높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사회통합의 역할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처럼, 노인문제에 있어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크게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에서는 그동안의 노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는 공적부양체계의 시책이 노인의 복지에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이 가족의 울타리 내에서 자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시설입소를 예방하며 친구들과의 유대관계와 여가활동을 위한 안정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거환경권내의 커뮤니티시설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2) 여가활용측면

여가란 일하는 시간, 수면시간, 생리적 욕구충족 등의 시간을 뺀 나머지의 시간에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활동을 뜻한다(장인협과 최성재, 1992).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제2의 인생’이 더욱 길어지는 추세이며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여가시간인 노인들에게 있어 여가시설의 필요성은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노인의 여가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 복지 사업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여가시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미흡하다. 경로당은 시설 규모가 작고 설비 수준이 열악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여가·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바둑·장기·화투·텔레비전 시청 등의 소극적인 여가활동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규모와 시설을 지닌 노인복지관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소득이 높으나 중상층에는 미흡한 일반노인들이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부담 없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계층의 여가 욕구를 해소하고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고정민과 정연승, 2002; 김형수, 2000; 김동배, 1999).

여러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가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다. 영국은 여가 권리를 보장하고 여가복지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 1973년 콧햄보고서²⁾에 의거해 여가개혁을 추진했으며 공공부문 여가시설을 여가센터로 통합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고 여가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여가센터 운영을 전문화했다. 일본도 1972년 정부 내에 신설된 여가부서 산하에 여가개발센터를 설립해 여가산업에 대한 정비와 유도, 국민 여가의식 계발, 여가를 통한 공동체의 복원 등과 같은 여가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³⁾ 그러나 한국은 여가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있어 여전히 미비한 단계이다.

공적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3) 접근성측면

근접성(Proximity)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공간에의 접근이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근접성이 좋을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고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개념이다. 접근성은 여가공급의 물리적인 요인으로 여가자원의 공급효율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변수가 되며 여가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는 경우 보다 더 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시설은 근접성 즉 물리적인 접근성이 요구된다(서유석, 1994; 신화경과 이연숙, 1997).

2) HMSO, House of Lords Report, Sport and Leisure(Cobham Report). London: HMSO Publications. 1973

3) 헤럴드경제, 2006.7.30일자

이때의 접근성은 참여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지각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재정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의 의미를 내포하며 (Griffiths, G.T. 1981)⁴⁾ 그러한 의미에서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은 지각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재정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 시설이다.

가까이에 친족이 있거나 이웃에 노인이 많거나 노인복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증가할 가능성이 많고 활동 범위의 폭도 넓어질 것이며 안정적이며 다양한 서비스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린환경은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병숙과 장선주, 2006; 서유석, 1994).

공동주택의 커뮤니티시설은 지속적인 여가활동의 환경적 조건을 제공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류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여가와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는 시설이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연령별 의식 및 선호비교를 위해 연령층을 30~40대 장중년층, 50대 예비고령자층, 60~70대 고령자층의 세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주택규모로 나누어 각 범주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세 연령층은 30~40대 장중년층, 50대 예비고령자층, 60~70대 고령자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장중년층이 47명, 예비고령자층이 49명, 고령자층이 44명이고,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1.4%, 여자가 38.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한 학력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30대는 대학원재학이상(16%), 대졸(76%), 고졸이하(8%), 40대는 대학원재학이상(9.1%), 대졸(68.2%), 고졸이하(22.7%), 50대는 대학원재학이상(30.6%), 대졸(46.9%), 고졸이하(22.4%), 60대는 대학원재학이상(9.5%), 대졸(4.8%), 고졸이하(85.7%), 70대는 고졸이하(100%)로 나타났다.

주택규모에서는 66.12㎡ 미만 (7.1%), 66.12㎡이상~99.17㎡미만(29.3%), 99.17㎡이상~132.23㎡미만 (41.4%), 132.23㎡이상~165.29㎡미만(15%), 165.29㎡이상 (7.1%)로 나타났으며, 99.17㎡ 이상~132.23㎡ 미만이 4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거주 가족구성원은 부부+자녀(52.1%), 부부(32.0%), 부모+부부+자녀(9.3%), 본인혼자(5.7%)로 응답하였다.

4) 신화경, 이연숙, 도시인의 여가행태 및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7.12, 재인용

3.2 여가 현황 및 의식

여가활동은 누구와 하는가에 대한 조사(여가 비활동 응답자 제외)에서 장중년층은 가족이 52.4%, 예비고령자층은 가족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층은 이웃주민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령자층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여가활동에서 근거리환경에서의 여가활동 지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표 2. 여가활동대상 단위: f (%)

대상	장중년층	예비고령자층	고령자층	전체	χ^2 (p)
혼자	8 (19.0)	4 (8.2)	5 (11.4)	17 (12.6)	80.692 *** (0.000)
가족	22 (52.4)	16 (32.7)	1 (2.3)	39 (28.9)	
친구	7 (16.7)	14 (28.6)	6 (13.6)	27 (20.0)	
이웃주민	4 (9.5)	2 (4.1)	30 (68.2)	36 (26.7)	
동호인	1 (2.4)	13 (26.5)	2 (4.5)	16 (11.9)	

지역의 여가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노인여가시설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참여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5%, '참여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86%로 나타나 지역의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의 여가프로그램 참여 단위: f (%)

	장중년층	예비고령자층	고령자층	전체	χ^2 (p)
참여하고 있다	5 (10.64)	1 (2.04)	11 (25.00)	17 (12.14)	18.956 *** (0.041)
참여해본 적은 있다	17 (36.17)	19 (38.78)	24 (54.55)	60 (42.86)	
참여해본 적 없다	25 (53.19)	29 (59.18)	9 (20.45)	63 (45.00)	

*** p<0.001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여가시설이 너무 멀어서'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 시설 부족 혹은 프로그램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여가시설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여가생활을 충분히 지원해줄 만큼 주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4. 여가활동 어려움 단위: f (%)

	장중 년층	예비 고령자층	고령 자층	전체
시간부족	26 (27.7)	30 (30.6)	0 (0.0)	56 (20.0)
경제적 부담	13 (13.8)	15 (15.3)	17 (19.3)	45 (16.1)
여가 시설 혹은 프로그램 부족	23 (24.5)	21 (21.4)	25 (28.4)	69 (24.6)
여가시설이 너무 멀어서	22 (23.4)	14 (14.3)	39 (44.3)	75 (26.8)
함께할 사람 없음	2 (2.1)	11 (11.2)	6 (6.8)	19 (6.8)
신체적 피로	5 (5.3)	3 (3.1)	1 (1.1)	9 (3.2)
어려움 없다	3 (3.2)	4 (4.1)	0 (0.0)	7 (2.5)

여가활동의 필요도를 살펴보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5점, ‘전혀 필요 없다’ 1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 연령층 모두 여가활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연령층의 필요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ANOVA 분석결과 유의확률 <math><0.05</math>로 유의하여 연령간의 차이가 응답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가활동 필요도

	장중 년층	예비 고령자층	고령 자층	전체	F	Sig.	group
필 요 도	4.69	4.37	4.32	4.42	4.131	0.018	고령자층 ^a < 예비고령자층 ^{a,b} <장중년층 ^b

* $p < 0.05$

여가활동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 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여가활동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9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여가활동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여가활동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환경에서의 거주 의사

	f	%
살고 싶다	138	98.6
살고 싶지 않다	0	0
모르겠다	2	1.4
계	140	100

3.3 커뮤니티 현황 및 의식

주거단지 이웃과의 교류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층은 3시간 이상이 59.1%인 반면 예비고령자층은 1시간 이내가 53.1%, 장중년층은 1시간이내가 38.3%로 나타나 고령자층의 경우 단지 내 이웃주민과의 교류시간이 가장 높고 예비고령자층의 단지 내 이웃주민과의 교류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7. 주거단지 이웃과의 교류시간 단위: f(%)

	장중년층	예비 고령자층	고령자층	전체	χ^2 (p)
전혀 없다	15 (32.0)	19 (38.8)	1 (2.3)	35 (25.0)	95.453 *** (.000)
1시간 이내	18 (38.3)	26 (53.1)	2 (4.5)	46 (32.9)	
1시간 이상- 3시간미만	14 (29.8)	4 (8.2)	15 (34.1)	33 (23.6)	
3시간 이상	0 (0.0)	0 (0.0)	26 (59.1)	26 (18.6)	

주거단지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티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층이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장중년층>고령자층>예비고령자층 순으로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이웃 간 교류 기여도에 대해서는 $p < 0.05$ 에서 매우 유의하여 연령간의 차이가 응답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령자층>장중년층>예비고령자층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고령자층의 높은 응답비율은 경로당시설이 주 교류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cheffe 다중비교결과 예비고령자층과 고령자층간에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이웃 간 교류 기여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예비고령자층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커뮤니티시설 내 고령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장중년층=고령자층>예비고령자층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

고령자와 아동의 상호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필요성에 있어서는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령자층>장중년층>예비고령자층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가족의 교류 공간 및 프로그램 필요성에 있어서는 $p < 0.05$ 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F < 5$ 로 그 차이가 비교적 적어 Scheffe 다중비교결과 그룹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장중년층>고령자층>예비고령자층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8. 커뮤니티 시설 내 주민 교류에 대한 의식

	장중년층	예비고령자층	고령자층	전체	F	Sig.
주거단지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티 중요도	4.28	4.00	4.16	4.14	2.474	0.088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이웃간 교류 기여도	3.83	3.37	3.95	3.71	5.088	0.007**
고령자시설복합화 필요도	4.34	4.08	4.34	4.25	2.609	0.077
아동과 고령자의 상호교류 공간과 프로그램 필요도	4.06	3.90	4.23	4.06	1.981	0.142
가족의 상호교류 공간과 프로그램 필요도	4.34	3.98	4.25	4.19	3.146	0.046*

* p<0.05 ** p<0.01

<표8>을 통해 커뮤니티 중요도 및 교류 공간 필요도에 비해 커뮤니티 시설의 이웃 간 교류 기여도는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거주자의 의식 및 요구에 비해

현재의 커뮤니티시설의 상호교류 지원성은 환경적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3.4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선호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통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적 교류가 39.3%로 1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여가생활이 36.4%로 나타났다.

표 9.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원하는 것 단위:f (%)

		장중년층	예비고령자층	고령자층	전체	X ² (p)
		커뮤니티 시설이용을 통해 가장 원하는것	사회적 교류 (36.2)	17 (36.2)	16 (32.7)	
건강 증진	3 (6.4)	13 (26.5)	14 (31.8)	30 (21.4)		
여가 생활	24 (51.1)	19 (38.8)	8 (18.2)	51 (36.4)		
교육 및 지식습득	3 (6.4)	1 (2.0)	0 (0.0)	4 (2.9)		
전체		47 (100)	49 (100)	44 (100)	140 (100)	

* p<0.05

표 10.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서 중요한 요인

단위: f (%)

연령별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오락성	정보성	경제성	사회성	건강성	접근성	프로그램다양성	
장중년층	1 순위	10 (21.28)	7 (14.89)	0 (0.00)	1 (2.13)	4 (8.51)	4 (8.51)	7 (14.89)	1 (2.13)	7 (14.89)	6 (12.77)
	2 순위	2 (4.26)	8 (17.02)	7 (14.89)	2 (4.26)	5 (10.64)	2 (4.26)	7 (6.38)	7 (14.89)	5 (10.64)	6 (12.77)
	3 순위	4 (8.51)	8 (17.02)	8 (17.02)	1 (2.13)	5 (10.64)	8 (17.02)	0 (0.00)	2 (4.26)	5 (10.64)	6 (12.77)
예비고령자층	1 순위	4 (8.16)	16 (32.65)	8 (16.33)	0 (0.00)	3 (6.12)	3 (6.12)	1 (2.04)	9 (18.37)	2 (4.08)	3 (6.12)
	2 순위	12 (24.49)	5 (10.20)	7 (14.29)	3 (6.12)	1 (2.04)	5 (10.20)	3 (6.12)	3 (6.12)	3 (6.12)	7 (14.2)
	3 순위	1 (2.04)	5 (10.20)	5 (10.20)	3 (6.12)	0 (0.00)	4 (8.16)	1 (2.04)	10 (20.41)	15 (30.61)	5 (10.20)
고령자층	1 순위	3 (6.82)	1 (2.27)	0 (0.00)	2 (4.55)	1 (2.27)	2 (4.55)	4 (9.09)	9 (20.45)	21 (47.73)	1 (2.27)
	2 순위	0 (0.00)	2 (4.55)	1 (2.27)	3 (6.82)	7 (15.91)	3 (6.82)	7 (15.91)	15 (34.09)	6 (13.64)	0 (0.00)
	3 순위	4 (9.09)	9 (20.45)	1 (2.27)	5 (11.36)	7 (15.91)	2 (4.55)	4 (9.09)	6 (13.64)	6 (13.64)	0 (0.00)
여성	1 순위	6 (11.11)	5 (9.26)	0 (0.00)	0 (0.00)	5 (9.26)	4 (7.41)	2 (3.70)	8 (14.81)	18 (33.33)	6 (11.11)
	2 순위	4 (7.41)	6 (11.11)	5 (9.26)	2 (3.70)	3 (5.56)	4 (7.41)	4 (7.41)	14 (25.93)	7 (12.96)	5 (9.26)
	3 순위	4 (7.41)	14 (25.93)	7 (12.96)	2 (3.70)	9 (16.67)	5 (9.26)	0 (0.00)	5 (9.26)	3 (5.56)	5 (9.26)
남성	1 순위	11 (12.79)	19 (22.09)	8 (9.30)	3 (3.49)	3 (3.49)	5 (5.81)	10 (11.63)	11 (12.79)	12 (13.95)	4 (4.65)
	2 순위	10 (11.63)	9 (10.47)	10 (11.63)	6 (6.98)	10 (11.63)	6 (6.98)	9 (10.47)	11 (12.79)	7 (8.14)	8 (9.30)
	3 순위	5 (5.81)	8 (9.30)	7 (8.14)	7 (8.14)	3 (3.49)	9 (10.47)	5 (5.81)	13 (15.12)	23 (26.74)	6 (6.98)

고령자층은 커뮤니티시설을 통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류가 50.0%로 나타났으며 장중년층은 여가생활이 51.1%, 예비고령자층은 여가생활이 38.8%로 나타나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주거단지 내의 커뮤니티 시설에서 중요한 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장중년층은 '1순위로 안전성, 2순위로 편리성, 3순위로 쾌적성, 경제성' 예비고령자는 '1순위로 편리성, 2순위로 안전성, 3순위로 접근성', 고령자는 '1순위로 접근성, 2순위로 건강성, 3순위로 편리성' 순으로 응답하여 커뮤니티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중년층은 안전성을, 예비고령자층은 편리성을, 고령자층은 접근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단지 내의 커뮤니티 시설에서 중요한 요인을 성별로 분석해본 결과, 여성은 '1순위로 접근성, 2순위로 건강성, 3순위로 편리성', 남성은 '1순위로 편리성, 2순위로 건강성, 3순위로 접근성'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커뮤니티시설의 이용에 있어 여성과 고령자층은 접근성을, 남성과 예비고령자층은 편리성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의 이용대상, 배치위치, 형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장중년층은 '단지 중앙에 위치/기능에 따라 독립된 형태/단지 내 거주자들만 한정하여 이용', 예비고령자층은 '단지 중앙에 위치/독립된 형태/외부인과 공유', 고령자층은 '단지 중앙에 위치/주거동 저층 배치/외부인과 일부만 공유' 를 선호하였다. 이는 주거단지 내의 커뮤니티 시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1순위로 장중년층은 안전성, 예비고령자층은 편리성, 고령자층은 접근성을 응답한 것과 부합하는 결과로써, 주거환경권내 시설이용에 있어, 어린자녀가 있는 장중년층은 시설이용에

안전한가를, 예비고령자층은 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가를, 고령자층은 신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범위 인가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권의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지역공동체의 교류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다양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자의 의식 및 요구에 비해 현재의 커뮤니티 시설의 상호교류 지원성은 환경적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시 여가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호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층은 커뮤니티시설에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이웃과의 교류를 응답하였고 여가활동대상의 가장 많은 비율이 이웃주민이었다. 이들이 커뮤니티시설에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1순위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시설에서의 교류환경을 계획할 때 접근성에 있어 고령자층의 공간거리를 배려한 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예비고령자층은 이전의 노인층과 비교해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중년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커뮤니티시설에서의 가족교류 필요도와 노인복지공간의 복합화 필요도에 대해 높게 응답하여 커뮤니티시설이 가족 울타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용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시설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커뮤니티시설의 배치위치 및 형태는 시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과 고령자층을 위한 접근성, 남성과 예비고령자층을 위한 편리성, 장중년층을 위한 안정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을 통해 시설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지역공동체의 교류 및 시설 이용에 대한 다양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사회통합관점에서의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가능성을 파악해 보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가·문화·건강·체육·교육·복지 서비스의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모든 연령층의 이용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주자의 선호 거리를 조율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고정민, 정연승 (2002),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 김동배 (1999), 미래사회와 노인여가활동, 한국노인문제연구소
3. 김형수 (2000),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전망과 대책, 한국

표 11. 커뮤니티시설 이용대상, 배치위치, 형태에 대한 선호

		장중년층	예비고령자층	고령자층	전체	X ² (p)
이용대상	단지 내 거주로만 한정	21 (44.7)	20 (40.8)	6 (13.6)	47 (33.6)	21.141 *** (.000)
	외부인과 일부만 공유	13 (27.7)	5 (10.2)	20 (45.5)	38 (27.1)	
	외부인과 공유	13 (27.7)	24 (49.0)	18 (40.9)	55 (39.3)	
배치위치	단지입구 쪽	10 (21.3)	10 (20.4)	4 (9.1)	24 (17.1)	4.687 (0.321)
	단지 중앙	31 (66.0)	31 (63.3)	36 (81.8)	98 (70.0)	
	단지 외곽	6 (12.8)	8 (16.3)	4 (9.1)	18 (12.9)	
선호형태	단지 내 독립된 형태	20 (42.6)	26 (53.1)	17 (38.6)	63 (45.0)	33.398 *** (.000)
	기능에 따라 독립된 형태	24 (51.1)	22 (44.9)	9 (20.5)	57 (40.7)	
	주거동 저층 배치	3 (6.4)	1 (2.0)	18 (40.9)	20 (14.3)	

- 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통권 79호, pp. 80-99
4. 서병숙·장선주 (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대한가정학회지, 82호 pp.171-186
 5. 서유석 (1994), 양로원과 근린생활권의 관계성 및 시설특성에 관한 연구 : 환경-행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6. 신연섭 (2006), 아파트 부대복리공간에 대한 사용자 의식 및 이용실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7. 신화경, 이연숙 (1997), 도시인의 여가행태 및 공간적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3 n.12 pp.187-195
 8. 장인협, 최성재 (199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9. 통계청 (2008), 장애인구특별추계
 10.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1. George Torkildsen (1983).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London :E & F N. Spon. pp.235-236
 12. HMSO (1973) House of Lords Report, Sport and Leisure(Cobham Report). London: HMSO Publications.

투고(접수)일자: 2008년 7월 22일

심사일자: 2008년 7월 25일

게재 확정일자: 2008년 8월 20일